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최근 조사성과

강진표(동북아지석묘연구소)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최근 조사성과

강진표(동북아지석묘연구소)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탁자식 지석묘와 묘역지석묘 |
| II. 조사현황 | 1) 탁자식 지석묘 |
| 1. 청동기시대 전기 무덤의 발굴 | 2) 묘역지석묘 |
| 1) 유물로 본 전기 무덤 | 3. 靑銅器의 출토 |
| ① 석기류 | 1) 비파형동검 |
| ② 토기류 | 2) 세형동검 |
| 2) 절대연대자료 | III. 맺음말 |

I. 머리말

청동기시대 무덤은 지석묘와 주구석관묘, 옹관묘, 석관묘, 토광묘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근래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호남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무덤의 최근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상정하고자 한다.

먼저 전남지역 지석묘와 토광묘에서 前期¹⁾ 관련유물이 출토된다는 것이다. 石器로는 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촉, 그리고 토기로는 이중구연토기와 혼암리식토기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유구로 보아 탁자식 지석묘와 묘역지석묘의 발굴사례 증가와 靑銅器 중 琵琶形銅劍과 細形銅劍, 銅鏡 등의 靑銅器를 공반하는 무덤의 조사예의 증가이다.

이러한 3가지의 성과를 중심으로 대상유적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에 있어서 早期의 설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송국리문화기를 中期로, 鐵器가 공반되지 않는 점토대토기문화기를 後期로 위치짓는 것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는 듯하다.
안재호, 2000,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p.8~9
김규정, 2007, 「청동기시대 중기설정과 문제」 『한국청동기학보』 1, 한국청동기학회, p.65~66
이형원, 2010.12,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과 송국리유형 형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고학』 9-2, 중부고고학회, p.44
이영문, 2011, 「청동기시대 전기 묘제의 양상」 『문화사학』 35호, 한국문화사학회, p.37
여기에서는 철기가 공반되지 않고 靑銅器만이 출토되는 시기(後期)까지의 무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사현황

1. 청동기시대 전기 무덤의 발굴

1) 유물로 본 전기 무덤

① 석기류

동시기대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 석검의 연구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이루어져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²⁾. 무덤에서 출토되는 석검 중 이단병식석검은 전기유물로 비정된다. 전남지역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지석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석묘 석실에서 이단병식석검의 출토예가 없었으나, 순천 남가유적³⁾에서 역시 전기유물로 비정되는 삼각만입촉과 함께 이단병식석검⁴⁾이 공반되어 출토되었다(도면 1-3). 또한, 나주 운곡동유적⁵⁾에서는 석검의 경부의 한쪽에 홈이 파진 유경식석검도 확인되었다(도면 1-1).

무덤 출토 석촉 중 삼각만입촉은 이단병식석검과 함께 전기유물로 비정되어진다. 근래에 삼각만입촉이 출토된 유구가 나주 장동리⁶⁾에서 확인되었으며, 유구는 토광묘로 삼각만입촉 6점, 환옥 2점, 채문토기 1점이 공반되었다.

② 토기류

지석묘에서 혼암리식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여수 월내동 상촌 지석묘Ⅱ⁷⁾에서 확인되었다(도면 1-4).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된 지석묘는 군집의 남쪽에 치우쳐 방형의 묘역지석묘에 연결하여 장방형의 정연한 구획석을 갖춘 묘역을 형성한 것이다. 출토위치는 묘역석 아래 묘광과 단벽석 사이로, 석실에서 비파형동검 경부(도면 4-4-⑤)가 출토되었다.

2) 박선영, 2004, 「남한 출토 유병식석검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裴眞晟, 2006, 「석검 출현의 이데올로기」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釜山考古學硏究會 論叢刊行委員會.
 박미현, 2008, 「유병식 마제석검의 전개와 지역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長龍俊·平郡達哉, 2009, 「유절병식 석검으로 본 무문토기시대 매장례의 공유」 『한국고고학보』 72집, 한국고고학회.
 이재운, 2011,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석검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3) 조근우·박미라·김경미·최석훈, 2011, 『순천 상삼·남가 유적』, 마한문화연구원.
 4) 전남지역 지석묘에서 이단병식석검의 출토예가 극히 적다고 하여, 전기에 해당되는 지석묘의 수가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보통 중기로 포함하는 일단병식석검 중 심부와 병부의 단이 뚜렷이 형성되어 있고, 심부의 형태가 정연하며, 병부가 弧狀을 이룬 석검의 시기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여겨진다.
 5) 김정애·이지영, 2008, 『나주 운곡동유적』 I, 마한문화연구원.
 6) 전남문화재단연구원, 2011.02, 「나주 노안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7) 강진표, 2010, 「여수 GS칼텍스공장 확장예정부지 내 여수 월내동 상촌·적량동 상적 지석묘군」 『이주의 고고학』,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이중구연토기는 군집의 중앙부에 위치한 석실에서 출토되었으며, 여기에서도 비파형동검<도면 4-4-②>이 완형으로 공반되어 출토되었다.

위의 2예와 함께 기존에 발굴조사된 적량동 상적 지석묘⁸⁾에서도 석실 주변에서, 삼각만입촉과 이중구연토기편들이 확인된 바 있었다<도면 1-2>.

2. 탁자식 지석묘와 묘역지석묘

1) 탁자식 지석묘

호남지역에서 탁자식 지석묘는 他형식에 비해 소수를 차지하고, 남해안지역으로 갈수록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근래에 발굴조사한 탁자식 지석묘로는 함평 대덕리 고양 지석묘 가군⁹⁾을 들 수 있으며<도면 2-1>, 함평군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나주시와 무안군에서는 나주 회진리 탁자식 지석묘¹⁰⁾와 <도면 2-2> 무안 성동리 안골 지석묘¹¹⁾가 발굴조사된 바 있다.

함평 대덕리 고양 지석묘 가군과 나주 회진리 탁자식 지석묘에서는 경부 양쪽에 흠이 있는 유경식석검이 출토되었다.

2) 묘역지석묘¹²⁾

묘역지석묘는 호남지역 전역에서 확인되며, 근래에 실시한 발굴조사에서는 여수반도에서 많은 수가 확인되었다.

확인되는 양상을 보면 대단위의 군집을 이루거나, 거대 묘역을 갖춘 것들이 확인되어, 영남 남해안에서 확인되는 묘역지석묘들과 유사성을 보인다.

8) 이영문·정기진, 1993, 『여천 적량동 상적 지석묘』, 전남대학교박물관.

9) 이영문·김승근·한옥민·김진환·홍밖음·강상희, 2010, 『함평 대덕리 고양 지석묘 가군』, 동북아지석묘연구소.

10) 임영진·조진선, 2005, 「Ⅲ.6 성 내부 지석묘」 『회진토성』 I, 백제문화개발연구원·전남대학교박물관, p.37~42

11) 이영문·정영희·한옥민, 1997, 『무안 성동리 안골 지석묘』, 목포대학교박물관.

12) 여기서 말하는 묘역지석묘는 구획묘, 묘역식(옹담식) 지석묘 등으로 부르는 지석묘를 말하는 것이다. 윤호필은 묘역을 청동기시대 무덤 구조의 한 요소(속성)으로 파악하고 ‘묘역’이란 용어자체가 그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式은 가장 큰 분류이고 ~形(型)은 의미가 맞지 않아 “○○式 墓域○○墓”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이상길의 정의를 수정·보완하였는데, 이 정의에 따른 명칭을 적용하였다.

윤호필, 2009, 「靑銅器時代 墓域支石墓에 관한 研究」 『慶南研究』 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李相吉, 2006, 「區劃墓와 그 社會」 『금강: 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유적으로는 여수 월내동 상촌·적량동 상적 지석묘¹³⁾와 여수 웅천동 모전유적¹⁴⁾(도면 3-1~3),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¹⁵⁾, 순창 무수리유적¹⁶⁾ 등을 들 수 있다.

3. 靑銅器의 출토

청동기시대 무덤에서 출토되는 靑銅器는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근래의 발굴조사에서 비파형동검은 지석묘에서, 세형동검은 토광묘에서 출토되고 있어 자료가 증가하고 있다.

1) 비파형동검

비파형동검이 출토되는 유적은 모두 지석묘유적으로 지역권은 전남지방, 특히 전남 남해안의 여수반도에 집중되어 있다.

여수 월내동 상촌 지석묘Ⅱ·Ⅲ군이 발굴조사되기 전까지 전남지방에서 확인된 동검은 총 16점이었다(도면 4-1~3). 여수 월내동 상촌 지석묘Ⅱ·Ⅲ군 발굴조사에서 4점이 출토되었고, 최근에 지석묘 이전·복원을 위한 해체과정에서 1점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여수 월내동 상촌 지석묘Ⅱ·Ⅲ군에서 총 5점(도면 4-4)의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어, 전남지역에서 확인된 비파형동검은 총 21점이다.

2) 세형동검

세형동검은 최근 발굴조사를 실시한 여수 웅천동 모전유적¹⁷⁾과 전주 원장동유적 16지구¹⁸⁾ 등에서 확인되었다.

여수 웅천동 모전유적은 지석묘와 송국리형주거지, 토광묘, 삼국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2기의 토광묘 중 1기에서 세형동검이 완형으로 1점 출토되었다(도면 3-2).

전주 원장동유적 16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토광묘가 구릉의 정상부에서 1기, 중단부에서 3기, 하단부에서 1기의 총 5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세형동검을 포함하여, 동경, 동과, 동사, 동부, 검파두식, 관옥, 환옥, 삼각형석촉, 원형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鐵器는 출토되지 않았다(도면 5-2).

13) 강진표, 위의 글, 2010.

14)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1.07, 「여수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5) 조근우·박미라·이순엽, 2011,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Ⅱ -분묘-』, 마한문화연구원.

16) 섬진강 상류의 강변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17)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위의 글, 2011.07.

18) 전북문화재연구원, 2011.09,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4구역-도시부)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Ⅲ. 맺음말

이상에서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최근 성과에 대하여, 철기가 공반되지 않는 무덤까지만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근래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보고서가 발간된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러 성과가 있겠지만, 첫째, 청동기시대 前期에 비정될 가능성이 있는 무덤의 발굴, 둘째, 지석묘 형식으로 보아 탁자식 지석묘와 묘역지석묘의 발굴 자료 증가, 셋째, 靑銅器 출토 무덤의 증가라는 세 가지 성과를 중심으로 대상유적을 살펴보았다.

전남지역에 대상유적의 비중이 높았음을 느낀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논문〉

- 김규정, 2007, 「청동기시대 중기설정과 문제」 『한국청동기학보』 1, 한국청동기학회.
- 박미현, 2008, 「유병식 마제석검의 전개와 지역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2004, 「남한 출토 유병식석검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裴眞晟, 2006, 「석검 출현의 이데올로기」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釜山考古學研究會 論叢 刊行委員會.
- 안재호, 2000,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호필, 2009, 「青銅器時代 墓域支石墓에 관한 研究」 『慶南研究』 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李相吉, 2006, 「區劃墓와 그 社會」 『금강: 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 이영문, 2011, 「청동기시대 전기 묘제의 양상」 『문화사학』 35호, 한국문화사학회.
- 이재운, 2011,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석검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형원, 2010.12,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과 송국리유형 형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고학』 9-2, 중부고고학회.
- 長龍俊·平郡達哉, 2009, 「유절병식 석검으로 본 무문토기시대 매장의례의 공유」 『한국고고학보』 72집, 한국고고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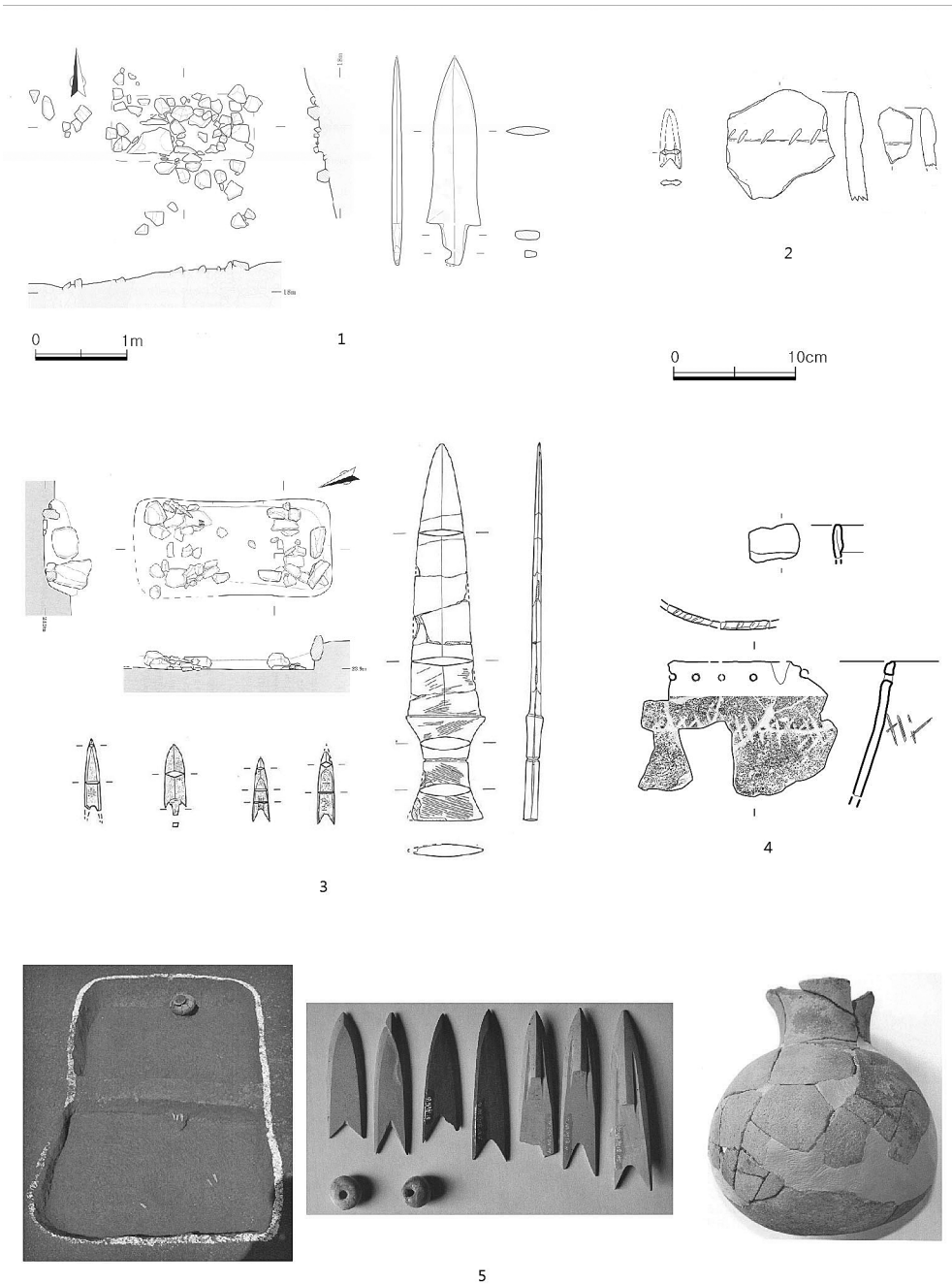
〈보고서/사례발표〉

- 김정애·이지영, 2008, 『나주 운곡동유적』 I, 마한문화연구원.
- 강진표, 2010, 「여수 GS칼텍스공장 확장예정부지 내 여수 월내동 상촌·적량동 상적 지석묘군」 『이주의 고고학』,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0, 『함평 대덕리 고양 지석묘 가군』
_____, 2011.07, 「여수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조근우·박미라·이순엽, 2011,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Ⅱ -분묘-』, 마한문화연구원.
- ____·박미라·김경미·최석훈, 2011, 『순천 상삼·남가 유적』, 마한문화연구원.
- 이영문·정기진, 1993, 『여천 적량동 상적 지석묘』, 전남대학교박물관.
- ____·정영희·한옥민, 1997, 『무안 성동리 안골 지석묘』, 목포대학교박물관.
- ____·김승근·한옥민·김진환·홍밝음·강상희, 2010, 『함평 대덕리 고양 지석묘 가군』,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임영진 · 조진선, 2005, 『회진토성 I』,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전남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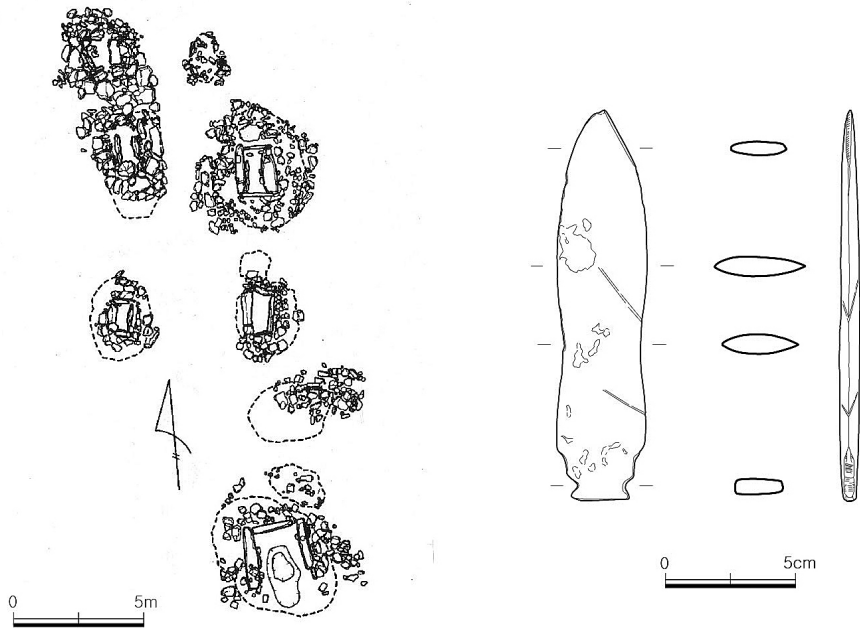
전남문화재연구원, 2011.02, 「나주 노안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전북문화재연구원, 2011.09, 「전주 · 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4구역-도시부)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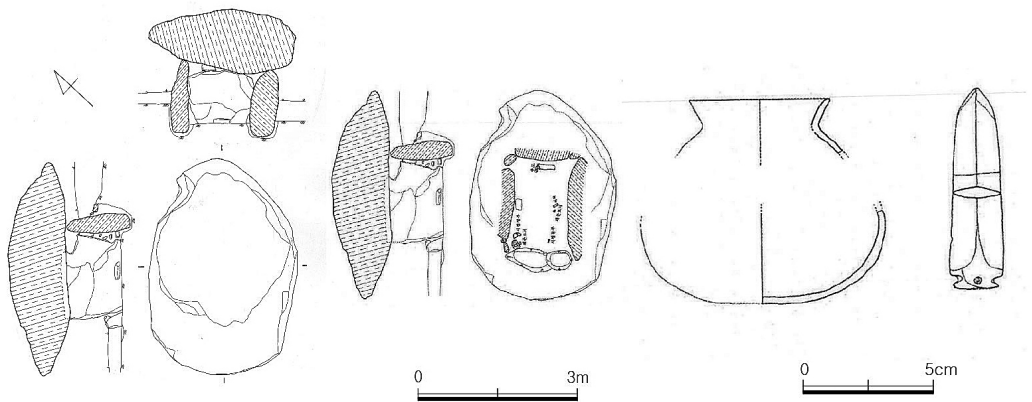


1. 나주 운곡동 라-3호 지석묘 2. 여수 적량동 유적 3. 순천 남가유적 4. 여수 월내동 상촌II 유적 5. 나주 장동리 유적

<도면 1> 청동기시대 전기 관련 유구 및 유물(S=유구:1/80, 유물:1/6, 5:축척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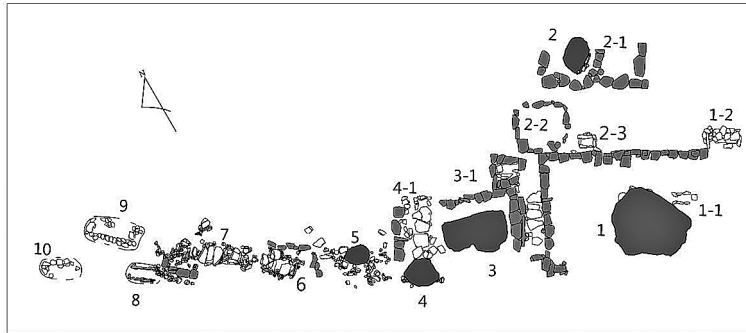
1



2

1. 함평 대덕리 탁자식 지석묘 2. 나주 회진리 사직 1호 지석묘

<도면 2> 전남지역 탁자식 지석묘[S=유구(1:1/300, 2:1/150), 유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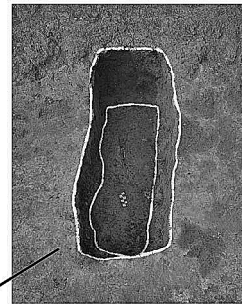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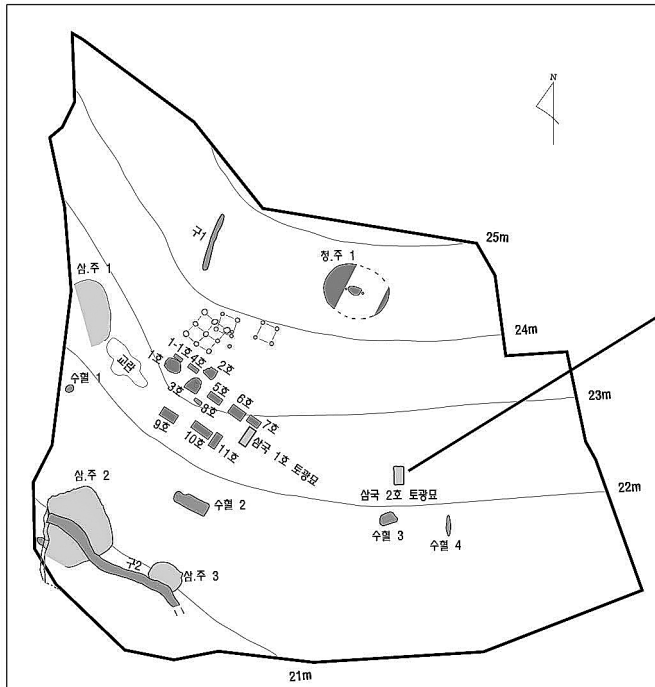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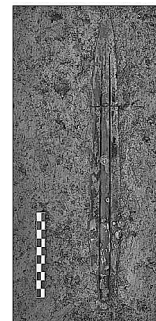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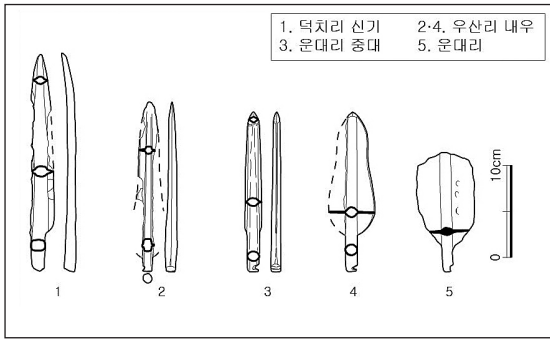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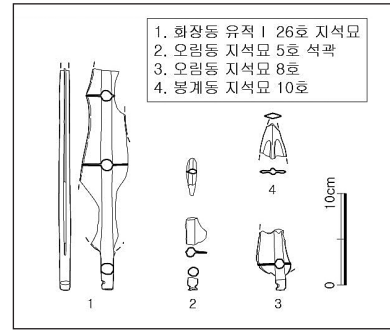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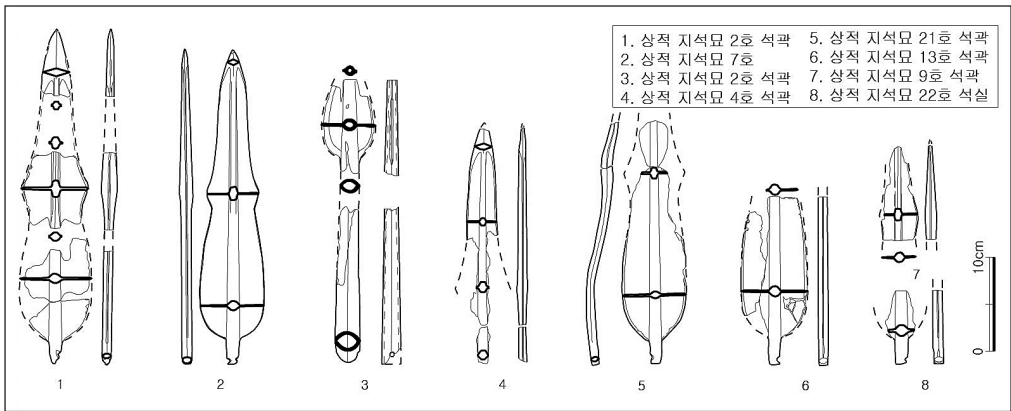
〈도면 3〉 여수 응천동 유적(묘전:1~3, 응동: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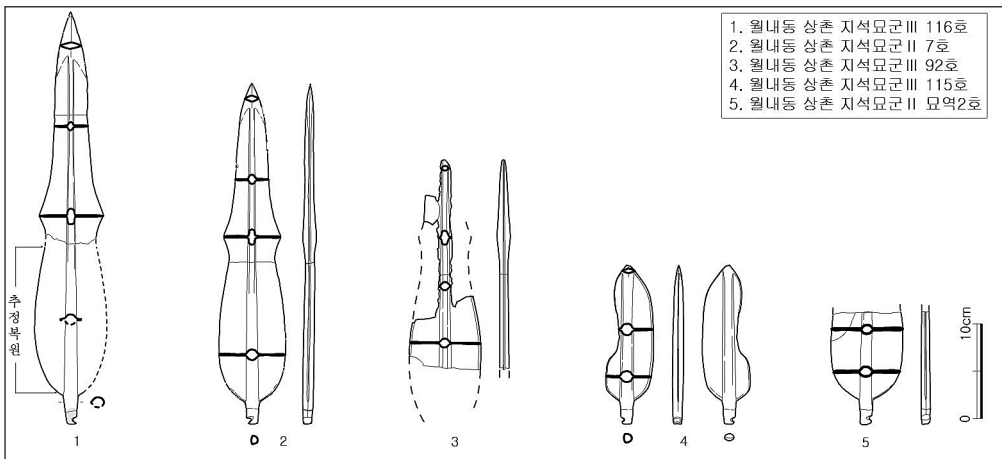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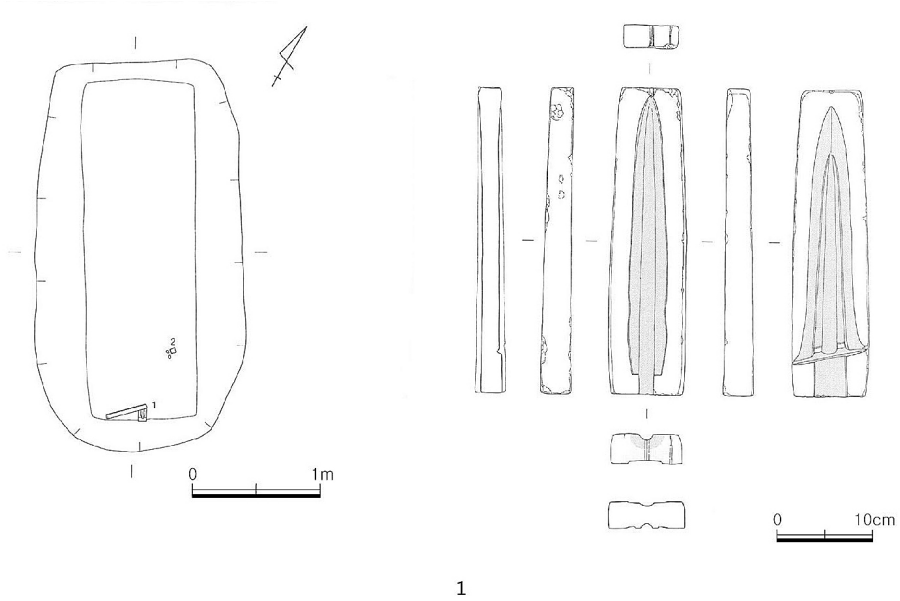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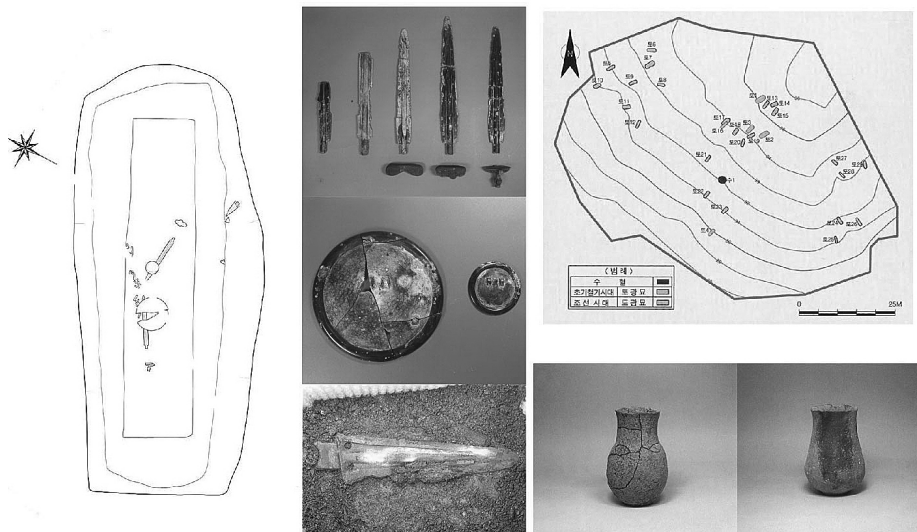


4

<도면 4> 전남지역 지석묘 출토 비파형동검·동모(1:고흥반도, 2:여수반도, 3:적량동 상적, 월내동 상촌 II·III, S=1/8)



1



2

1. 완주 갈동 2. 전주 원장동

〈도면 5〉 전북지역 靑銅器 출토 토광묘(S=유구:1/60)